

September 7, 2025

## Multiplication 번성 ASAP

2 열왕기하 4:1-7

오늘 저는 “multiplication”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ultiplication 은 수학에서 말하는 곱셈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살아내도록 부르신 **번성 multiplication** 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번성’은 교회의 DNA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번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 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작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 1:28) 였습니다.

번성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핏줄도 끊기고, 인류가 소멸되는 길입니다. 번성이 없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019 년에 Lifeway Research 는 약 4,500 개의 개신교 교회가 문을 닫았고, 단지 약 3,000 개만이 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단 1 년 만에 전체 숫자에서 1,500 개의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Lifeway 의 전 회장은 2025 년에만 15,000 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전국 교회 협의회는 앞으로 수년 안에 미국 교회가 최대 100,000 개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번성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번성하지 않으면 시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번성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스미스채플 교회가 아무리 135 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고 한들, 우리가 번성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교회 문이 닫힐 것입니다. Dranesville Church of the Brethren 역시 번성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번성 Multiplication 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현수막에 적어놓는 멋진 구호가 아닙니다. 번성은 우리의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번성은 우리의 생명줄에 관한 것입니다. 번성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4 장은 우리와 동떨어진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위기에 처한 과부입니다. 그녀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죽었고, 빚은 쌓이고 있으며, 그녀의 아들들은 이제 종으로 팔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미래가 없어보입니다. 풍전등화처럼 오늘 내일 하는 것입니다. 1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세상으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채권자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으로부터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렘 33:3).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시 18:6)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셨나요? 우리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과부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한데, 엘리사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그는 즉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 주시오. 집 안에 무엇이 남아 있소?” 이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주님,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들처럼 많은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지탱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있다고 말씀드릴수는 있겠지만—뭔가 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성의 시작은 항상 작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오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밖에 없었지만 순종하며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우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사 60:22; 마 13:31-32; 19:30; 고후 12:9-10 참고).

작년에 저는 가족과 함께 미얀마로 선교 여행을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고라는 지역에 있는 작은 가정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이 예배당의 약 절반만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미얀마 여느 때의 날씨처럼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걸어서 와서, 그 좁은 장소에 어깨를 맞대고 바닥에 뻥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더위였지만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준으로보면, 그들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그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번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 출신으로 전도되어 기독교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큰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며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번성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번째는 **번성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되, 되도록 많이 빌려 오시오.”** (3-4 절) 여기에 번성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 심오해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번성은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물가로 가야겠지요—아니면 적어도 Safeway 나 Costco 에 가든지, 하다 못해 맥도날드에 가서 피시버거라도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를 원한다면, 씨앗을 밭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를 아시겠지요? **제자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이웃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언제였나요?**

이 과부가 이웃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릇들을 빌려야 했습니다. 아마 창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색하기도 했겠지요. 다리도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몇몇 이웃들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은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번성은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번성은 나를 좋게 보이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앞서 저와 저희 가정은 작년에 미얀마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지요.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 산책나갔다 온 것이 아니었지요. 거기에 가는데만 40 시간 이상이 걸렸고, 돌아오는 데 36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많았습니다. 또, 모기가 얼마나 많던지요. 그 여정은 모든 면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요. 지구 반대편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가 아니라 무려 두 개의 새로운 교회(예배)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마 25:21). 요점은 이것입니다. **번성은 순종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임재로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따라오는 질문은, **“무엇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가?”** 입니다. 이야기로 돌아가면, 엘리사는 그녀에게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고 했습니다—왜 빈 그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기름을 담기 위해 빈그릇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빈 그릇이 우리의 비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상에는 그런 빈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움으로 텅텅 빈 사람들. 좌절로 비어사람들. 성공을 추구하다가 마음에 공허함으로 가득찬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거리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놓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빈 그릇들을 가져오라.”**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직 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상은 세상으로 나아가 빈 그릇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직 보지 못했다. “오라, 하나님께서 너를 채우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또 한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과부에게 **“새 그릇을 사라”** 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릇을 빌리라”** 고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번성은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립 속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의미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Smith Chapel 과 Dranesville Church of the Brethren 를 함께 모아주신 것은 단지 함께 예배드리거나 함께 음식 나누는 즐거움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물론 그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그러나 서로에게서 “그릇을 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번성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일하고, Great Falls, Herndon, Sterling, 그리고 그 너머의 이웃들 가운데 있는 빈 그릇들을 찾고, 모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두 교회가 더 많이 협력하고, 더 깊은 파트너십 관계를 세우고, 서로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더 많은 빈 그릇들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두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 번성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자신의 울타리를 너머 ‘나가서,’ 빈 그릇들을 ‘모으며,’ 그것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후에 엘리사는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려온 후에)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4-5 절) **왜 문을 닫아야 합니까?** 그 의미는 번성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쇼 show** 가 아닙니다. **번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입니다.** 닫힌 문 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그녀는 부었고 또 부었습니다—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오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닫힌 문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지요. 그들이 채워졌을 때, 문이 열렸고 번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삼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 번성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문을 닫고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문을 닫고, 바쁨에 문을 닫고, 세상 근심에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곳의 모든 빈 그릇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세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번성은 예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흥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기도하는 스미스채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Dranesville Church of the Brethren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엘리사는 말합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빛을 값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6-7 절) 결국 이 과부에게 임했던 기적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그녀의 가족을 **빛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종살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두번째는 그녀의 **가족의 미래**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살아갈 삶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번성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그것은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사는 한 가족에게 기름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십니다. 엘리사는 한 가정의 빛을 해결해주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빛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의 기름은 그릇들의 숫자에 멈췄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빈 그릇을 예수님께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하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는 심각한 빛 가운데 있습니다—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중독과 절망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자신의 미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집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에도 번영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잘 것 없는 기름 한 병을 넘치는 번성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번성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속된 것입니다. G. K. 체스터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태양에게 ‘다시 하라’고 말씀하시고; 매일

저녁 달에게 ‘다시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창세기 1:28 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작고 보잘 것 없음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널려있는 빈 그릇들을 모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믿음으로 쏟아낼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번성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번성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여기에 나의 작은 기름이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하소서!”라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 그릇들을 모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족,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일은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함께해야 합니다—두 교회, 세 교회, 더 많은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닫힌 문 뒤에서 번성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 속에 임할 부흥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예배당에서 그 부흥을 맛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번성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과 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고치시지 않고 더 크고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 7:37-38).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발로 읽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단지 우리의 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발로 들어야 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실천할 몇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Multiplication ASAP**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번성을 속히 이뤄달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1. **Approach** – 번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변화와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그분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1 절)
2. **Surrender** – 여러분의 “작은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 절)
3. **Ask** – 영적으로 공허한 이웃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 오시오.” 3 절)
4. **Pray** – 매일 문을 닫고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4 절)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작은 기름 병들과,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교회를 번성케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넘쳐 흘러—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세상을 어루만지게 하시고—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흥케 하시며, 모든 이가 주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